

정도(正道)를 잃었다.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몰리고, 사회는 갈수록 혼탁해져 간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고, 정치는 상쟁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느낄 수가 없다.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기본'을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바로 부처님의 삶이다. 본지는 2005년 신년특집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기획을 마련, 개인·가족·사회·교육·정치·경제 6개 분야로 나눠 현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 “우리도 부처님같이”

개인의 삶, 인류 역사의 핵	26
'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27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28~29
불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30~31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32~33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 풀기	34
부처님 삶을 사는 사람들	37~38

# 그분의 삶엔 탐·진·치 발붙일 틈이 없었네



도법 스님

### 신년 특별 기고

벗어. 몇 톨 한 해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과 세상을 잘 알고 그 앞에 온갖 거짓의 허울들을 벗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보네. 참된 수행이란 자신과 세상을 상대로 솔직·겸허할 때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믿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 중노릇이 왜 이렇게 힘들고 숨가쁜 것인지 그 이유들을 진지하게 따져보려고 하네.

**큰** 리해야 하니 어느 하루 한가할 겨를이 없네. 풍족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돈 많이 모으고 잘 관리해야 하니 어제도 오늘도 밤을 지새우게 되네.

큰 자동차를 타고 더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니 여유 있게 나누고 베풀 여력이 생기지 않네. 좋은 옷 입고 맛있게 잘 먹으며 지내려고 하니 차분하게 경전 읽고 참선할 겨를이 없네.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스님들의 영향력을 확대·강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써야 하니 끝이 터질 지경이네. 재산 불리고 신도 늘리기 위해 기발한 묘안들을 찾아내려고 온갖 머리를 굴려야 하니 등 끝에 땀이 나네. 하는 것도 안 하는 척,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근엄한 모습으로 대중들을 압도하려고 하니 목이 뻣뻣하여 부러질 지경이네.

중노릇이 바쁘고 고달픈 이유를 대충 짚어보았네. 더 좋고 더 크고 더 편리함을 좋아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본 기억이 나네. 더 높은 권위를 누리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려는 것을 경전에서는 집착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자네도 알고 있을 것이네.

정치, 겸허, 소탈의 정 반대인 근엄, 정숙, 거룩함을 꾸미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네.

내용의 앞뒤를 따져 중노릇의 실상을 확인해본 결과 그야말로 전도몽상의 중노릇을 하고 있음이 확인해졌네. 중노릇이 바쁘고 고달픈 이유가 불조께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탐진치를 좇는 일이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네. 하지만 엄연한 진실을 어찌하겠는가. 이런 중노릇을 하려고 사발염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탐진치를 좇는 중노릇을 하느라 바쁘고 고단했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과 세상을 기만하는 중노릇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을 찾을 수가 없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일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인데. 착잡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온갖 상념들

군이 부처님에게서 최고의 권위, 막강한 영향력, 신성한 거룩한 따위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리의 세계관에 대한 확신과 늘상 깨어 있는 지혜로움의 위엄이 있었네. 너그럽고 따뜻하고 헌신적인 자비의 기운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네. 솔직하고 겸허하고 소탈함이 일상의 삶으로 실천되는 거룩함이 사람들을 감화시켰네.

아함경과 율장의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 중노릇의 내용을 매우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네. 특히 승단의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제바닷다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와 말씀을 보면 저간의 사정은 더욱 분명하네. 수행자의 일상적 의식주 생활을 더욱 급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제바닷다의 주장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대단히 단호하시네. 제바

닷다의 주장을 네 가지 성스러운 종자를 끊는 일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벗** 이어, 힘든 중노릇 그만하고 싶네. 전도몽상에 매달리는 중노릇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네. 정말 더 이상은 골머리 썩는 중노릇은 하지 않으려고 하네. 누가 뭐라 해도 율해부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처님처럼 편안하고 소탈한 중노릇을 하고 싶네. 탐진치가 싹쓸 수 없는 편안하고 소박한 중노릇. 부처님 같은 중노릇을 했으면 하네. 탐진치 불꽃에 현혹되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전도몽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중노릇을 하는데 머리를 쓰고 싶네.

탐진치의 불씨를 더욱 왕성하게 타오르도록 만드는 기계 문명사회, 물질문명사회, 도시문명사회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탐진치의 불길을 잠재우는 길을 안내하는 중노릇을 하는데 남은 세월을 쓰려고 하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만큼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 여유롭고 편안한 중노릇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 모르긴 몰라도 부처님처럼 소탈하게 중노릇하고 부처님처럼 길을 가르치는 중노릇을 하면 본인도 좋을 것이고 한국불교도 희망할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네.

올해는 대중스님들께서 고단한 중노릇을 내던지고 편안한 중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을 할 수 있도록 신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내려고 하네. 불교의 희망, 수행자의 희망, 불교도들의 희망, 세상의 희망은 부처님처럼 소탈한 중노릇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확신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지 대답을 듣고 싶네.

도법 스님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리산생명연대 공동대표. 현재 3년 계획으로 '생명평화 탁발순례' 중이다. (내가 본 부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등의 저서가 있다.

### 참된 수행이란 솔직·겸허에서 출발

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밀려가네. 뒤쪽박죽 돼버린 중노릇의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당** 연히 중노릇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네. 선사, 강사, 율사, 법사, 포교사 어느 모로 보나 중노릇을 최고로 잘한 사람은 부처님일 것이네. 중정, 조실, 방장, 총무원장, 주지, 그 무엇으로 따져보아도 중노릇을 제일 잘 한 사람은 석가모니임을 틀림없을 것이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네.

그렇다면 최초의 중인 부처님의 중노릇은 어떤 살림살이였을까 몇 가지 사례로 중노릇의 전형을 생각해보겠네. 본인의 식욕과 관계없이 주어진 음식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 잡수셨네. 버려진 환경조각들을 깨끗하게 빨아 옷을 만들어 입으셨네. 안고 누울만한 방에서 단순·소박하게 지내셨네. 안에 혼자 있어도 소탈했고, 밖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소탈하셨네. 살 자체가 탐진치의 씨앗들이 발붙여 싹쓸 수 없었네. 동분서주해야 될 거창한 일들을 아예 꾸미지 않았네. 거룩한 모습으로 위엄을 꾸미는 일은 아예 가까이 한 적이 없었네.

주어진 의복, 방사, 음식, 의약품에 대해 만족해하는 수행자의 소박한 삶을 네 가지 성스러운 종자를 가꾸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네. 금욕, 엄숙주의를 부정하고 정지, 소탈의 삶이 수행자의 성스러운 삶이라고 정의하는 붓다의 모습은 진정 멋지다고 여겨지네.

부처님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치는 자 일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길을 가르치기 위해 일생을 길에서 보내셨네. 하지만 늘 여유롭고 편안하고 활달하셨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처님은 언제나 주어진 조건에 스스로 만족하셨네. 어디서나 솔직하고 소탈하셨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항상 현재를 살아가셨네. 더 많이 갖고 더 편안하려고 애면글면 하지 않았네. 특별한 것 찾으려고 고심하지도 않았네. 엄숙하고 위

www.hallaapt.co.kr

##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 한라 비발디

사계절을 테마로 조경부문을 특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선사하는 한라비발디 - 만나보세요. 늘 머물고 싶고 살수록 돋보이는 아파트!

사계절 아름다운 공간, 한라비발디 -

